

# 한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대하여

임홍빈\*

## 1. 머리말

본고는 한국어 문법에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규칙 활용을 익히지 못하면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말하거나 쓰는 단계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학교 문법에서는 불규칙 활용은 형식적으로 취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불규칙 활용을 내화(內化)한 한국인을 상대로 문법 교육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용언의 불규칙 활용은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어 용언의 활용 양상이 모두 낯선 것인데, 이론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기술을 통하여 문제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규칙 활용에 대하여 무엇보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학교 문법에 채택된 불규칙 활용의 개념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1985년 통일 학교 문법에 채택된 불규칙 활용은 비자동적 교체(非自動的交替)와 같은 것이었다. 한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 하였다. 이에 의하여 종래의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예가 ‘ㄹ’ 불규칙 활용과 ‘으’ 및 ‘우’ 불규칙 활용이었다. 어간말의 ‘ㄹ’이나 ‘으’ 혹은 ‘우’가 탈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규칙 활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규칙 활용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ㄹ’ 받침을 가진 모든 용언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ㄹ’ 받침을 가진 용언 내부에서의 일이다. 그러나 불규칙 활용은 이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받침을 가진 다른 용언의 활용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다른 받침을 가진 다른 용언도 같은 양상을 보이면 규칙적인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규칙적인 것이 된다. ‘으’나 ‘우’ 탈락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이 밖에도 ‘흐르다’와 같은 예에 나타나는 ‘ㄹ’ 불규칙의 문제, ‘파랳다’와 같은 예에서, ‘ㅎ’이 탈락하는 것과 어간 ‘파랳-’에 어미 ‘-아/어’가 올 때 ‘파래’가 되는 현상, ‘좋다, 많다’와 같은 예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 및 ‘이다’의 활용에서 어미에 ‘ㄹ’이 나타나는 현상 등이 불규칙 활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 2. 최현배(1937)과 학교 문법의 불규칙 활용

여기서는 최현배(1937=1959)에 제시된 불규칙 활용의 성격과 종류와, 1985년

---

\* 서울대 명예교수

학교 문법에서 설정된 불규칙 활용의 성격과 종류를 보기로 한다.

## 2.1. 최현배(1937)의 불규칙 활용

최현배(1937=1959: 320-339, 501-511)에서 불규칙 활용(벗어난 끝바꿈)은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법(끝바꿈법)에 벗어난 끝바꿈을 말한다. 불규칙 활용은 용언의 어간이 변하는 것과 어미가 변하는 것 그리고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 것의 3가지로 설정되었다. 동사의 불규칙 활용이 11종,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이 8종으로, 종류가 다른 것은 총 12종류의 불규칙 활용이 설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1985년 학교 문법에서는 총 9종의 불규칙 활용이 설정되었다. 이는 불규칙 활용의 개념이나 그 적용의 실체가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다’는 ‘지정사(잡음씨)’라 하여 동사, 형용사와 다른 제3의 용언으로 설정되었다. 최현배(1937)에서 동사의 불규칙 활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셋으로 나뉜다. 그 종류와 예를 보이기로 한다.

### (1) 최현배(1937=1959: 320-339)에서 동사의 불규칙 활용

가. 어간이 원칙에 벗어난 것

#### A. 어간의 끝소리가 줄어드는 것

- (ㄱ) ‘ㄹ’ 벗어난 움직씨 (ㄹ 變格動詞): 갈다 - 가니
- (ㄴ) ‘ㅅ’ 벗어난 움직씨 (ㅅ 變格動詞): 잇다 - 이으니
- (ㄷ) ‘으’ 벗어난 움직씨 (으 變格動詞): 따르다 - 따라
- (ㄷ) ‘우’ 벗어난 움직씨 (우 變格動詞): 푸다 - 피

#### B. 어간의 끝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것

- (ㄹ) ‘ㄷ’ 벗어난 움직씨 (ㄷ 變格動詞): 듣다 - 들어
- (ㅁ) ‘ㅁ’ 벗어난 움직씨 (ㅁ 變格動詞): 굽다 - 구워

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난 것

- (ㄱ) ‘여’ 벗어난 움직씨 (여 變格動詞): 하다 - 하여
- (ㅇ) ‘러’ 벗어난 움직씨 (여 變格動詞): 이르다 - 이르러
- (ㅈ) ‘거라’ 벗어난 움직씨 (거라 變格動詞): 가다 - 가거라
- (ㅈ) ‘너라’ 벗어난 움직씨 (너라 變格動詞): 오다 - 오너라

다. 어간과 어미가 함께 원칙에 벗어난 것

- (ㄷ) ‘르’ 벗어난 움직씨 (르 變格動詞): 흐르다 - 흘러

최현배(1959)에서는 동사의 불규칙 활용과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특징이다.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은 (1)과 유사하지만 종류에도 차이가 있고, 수에서도 차이가 있다.

### (2) 최현배(1937=1959: 501-511)에서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

가. 어간이 원칙에 벗어난 것

#### A. 어간의 끝소리가 줄어드는 것

- (ㄱ) ‘ㄹ’ 벗어난 그림씨 (ㄹ 變格形容詞): 길다 - 기니
- (ㄴ) ‘ㅅ’ 벗어난 그림씨 (ㅅ 變格形容詞): 낫다 - 나으니
- (ㄷ) ‘ㅎ’ 벗어난 그림씨 (ㅎ 變格形容詞): 빨강다 - 빨가니

(ㄹ) ‘으’ 벗어난 그림씨 (우 變格形容詞): 아프다 - 아파

B. 어간의 끝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것

(ㄹ) ‘ㅁ’ 벗어난 그림씨 (ㅁ 變格形容詞): 답다 - 더워

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난 것

(ㅁ) ‘여’ 벗어난 그림씨 (여 變格形容詞): 착하다 - 착하여

(ㄴ) ‘러’ 벗어난 그림씨 (여 變格形容詞): 푸르다 - 푸르러

다. 어간과 어미가 함께 원칙에 벗어난 것

(ㅇ) ‘르’ 벗어난 그림씨 (르 變格形容詞): 이르다 - 일러[무]

최현배(1959)에서 (1), (2)와 같은 불규칙 활용을 상정한 것은 매우 간단한 원리에 의한다.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이 변하는가, 어미가 변하는가,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가 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지 않는 것이 정격(正格)이고, 규칙적인 것이 된다. (1)과 (2)에서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음운 법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활용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학교 문법에 따라 ‘정격’을 ‘규칙’, ‘변격’을 ‘불규칙’이란 용어로 바꾸기로 한다.

(3) 최현배(1937=1959)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최현배(1937=1959)에서 규칙 활용은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지 않는 것이며,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는 것이다.

위의 (1)과 (2) 즉 최현배(1959: 106ff)에서 불규칙 활용과 구별되는 것은 ‘음의 변화(소리의 달라짐)’이다. 이는 ‘날날의 소리가 다른 소리의 영향을 입어 그 본래의 성질을 잃어 버리고 얼마큼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sup>1</sup> 이에 ‘음의 동화(소리의 닮음)’와 ‘음의 생략(소리의 줄임)’<sup>1</sup>이 포함된다. ‘음의 동화’에는 간음화(間音化), 음라우트(“건너 닮기”), 모음조화(“홀소리 어울림”), 자음접변(“닿소리의 이어바뀜”), 구개음화(“이봉소리되기”) 등이 포함되고, ‘음의 생략’에는 ‘가아 보니 →가 보니, 서어서 있다 → 서서 있다, 뜨어들고<sup>2</sup> → 떠들고, 기쁘어 한다 → 기뻐한다, 오[來]-+ -아 →와’ 등과 같은 현상이 포함된다. ‘음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1)이나 (2)의 불규칙 활용과는 구별된다. 최현배(1937=1959)에서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가르)의 ‘으’ 불규칙이다. ‘기쁘-+ -어→기뻐’가 (2가르)의 ‘으’ 불규칙 활용에 속하면서도 ‘음의 생략’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분명히 반성의 재료가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4) ‘으’ 탈락과 ‘으’ 불규칙 활용

최현배(1937=1959)에서 ‘기쁘-+ -어→기뻐’와 같이 어간의 ‘으’가 탈락하는 현상은 음의 변화인 음의 생략에도 속하고 ‘으’ 불규칙 활용에도 속

<sup>1</sup> 최현배(1937=1959)에서는 이것이 ‘음의 생략(省約)’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술어에 따라 이를 ‘음의 생략’으로 부르기로 한다.

<sup>2</sup> \*‘뜨어들다’와 같은 어형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뜨어들다’는 한국어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다. 현대어의 ‘떠들다’는 이미 ‘뜨다[浮?]'나 ‘들다[擧?]'와의 의미적 유연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다.

한국어학에 Hockett(1958)가 도입된 이후, 음(音)의 변화(變化)는 ‘자동적 교체(Automatic Alternation)’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동적 교체(Automatic Alternation)’와 대립을 이루는 것이 ‘비자동적 교체(Non-Automatic Alternation)’이다. 이러한 개념의 도입과 함께, 불규칙 활용은 비자동적 교체라는 인식이 짝트게 되었다. 그러나 불규칙 활용과 비자동적 교체의 개념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다.

최현배(1937=1959)에서는 ‘이다’의 활용을 동사, 형용사와 따로 분리한다. 동사와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을 위의 (1)과 (2)와 같이 따로 다루었으므로,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이다’의 활용을 이들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정사(잡음씨) 즉 우리의 ‘지정 형용사’에는 ‘이다’ 외의 다른 용언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활용은 아무리 불규칙한 것이라도 지정사 내에서는 다른 용언과 대비되는 것이 없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이다’에 관한 한, 무엇이든 규칙적인 것이 된다. ‘이다’의 활용에 불규칙 활용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형용사의 활용을 동사의 활용과 구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형용사나 동사는 모두 용언에 속한다. 그들은 용언의 활용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이에 다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지정 형용사 ‘이다’의 활용을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과 구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역시 그렇지 않다. ‘이다’는 형용사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활용의 양상이 형용사와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어떤 동사의 활용이라는 것을 다른 용언과 비교할 때의 그 ‘다른 용언’이라는 것을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에 한정하고, 형용사의 경우에는 다시 또 단지 형용사에만 한정하고, 지정사의 경우에는 다시 또 지정사에만 한정하는 것과 같은, 영역의 축소와 그로 인한 현상의 이질화는 온당한 것이 아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 (5) ‘이다’의 범주와 활용

최현배(1937=1959)에서 ‘이다’는 동사에도 속하지 않고 형용사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다’의 활용은 어떠한 것이든 불규칙 활용에 속하지 않는다. ‘이다’의 활용과 대비되는 다른 용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온당한 것이 아니다.

다시 위의 (1)과 (2)를 보기로 하자. 최현배(1937=1959)는 분명히 동사의 불규칙 활용과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동사와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이 범주를 달리할 만큼 이질적인 것은 아니다. (1)과 (2)에서 ‘ㄹ’ 불규칙, ‘ㄴ’ 불규칙, ‘ㄷ’ 불규칙, ‘ㅂ’ 불규칙, ‘ㅅ’ 불규칙, ‘여’ 불규칙, ‘으’ 불규칙은 동사와 형용사에서 그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다. 반면, ‘ㅎ’ 불규칙 활용은 동사에는 없고 형용사에만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일부는 동사와 형용사의 본질적인 속성과 관련되고, 일부는 동사와 형용사의 우연적인 속성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가령 ‘ㄷ’ 불규칙 활용이나 ‘우’ 불규칙 활용이 동사에만 있고 형용사에 없는 것은 어간이 ‘ㄷ’이나 ‘우’로 끝나는 형용사가 없기 때문이

다. 이는 동사와 형용사의 우연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다. ‘ㅎ’ 불규칙 활용이 동사에 없는 것은 동사에는 어간이 ‘ㅎ’으로 끝나는 동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우연적인 속성의 차이이다. 반면, ‘-거라, -너라’ 불규칙이 형용사에 없는 것은 형용사에 본래적으로 명령이 없는 것과 관련된다.<sup>3</sup> 이는 동사와 형용사의 본질적인 속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용언 전체를 그 범위로 하는 불규칙 활용의 유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 (6) 동사,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의 동질성

동사와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을 원리상 구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이라는 공통된 범주에 속하며, 그 불규칙 활용의 양상이 동질적이다.

편의상 동사의 불규칙 활용과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을 따로 다룰 수는 있으나, 그 성격은 분명히 동질적인 것이다.<sup>4</sup> 이에 대하여 1985년 학교 문법에서의 불규칙 활용은 그 수와 범주에서 (1), (2)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절을 바꾸어 보기로 한다.

## 2.2. 학교 문법에서의 불규칙 활용

먼저 1985년 학교 문법에 상정된 불규칙 활용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sup>5</sup>

### (7) 1985년 학교 문법의 불규칙 활용

#### 가. 어간의 불규칙 활용

- (ㄱ) ‘ㅅ’ 불규칙 활용 : 짓다 - 지으니
- (ㄴ) ‘ㄷ’ 불규칙 활용 : 듣다 - 들어
- (ㄷ) ‘ㅂ’ 불규칙 활용 : 돕다 - 도와
- (ㄹ) ‘ㄹ’ 불규칙 활용 : 흐르다 - 흘러<sup>6</sup>

#### 나. 어미의 불규칙 활용

- (ㄹ) ‘여’ 불규칙 활용 : 하다 - 하여(해)
- (ㄹ) ‘러’ 불규칙 활용 : 이르다 - 이르러
- (ㄹ) ‘거라’ 불규칙 활용 : 가다 - 가거라
- (ㅇ) ‘너라’ 불규칙 활용 : 오다 - 오너라

#### 다.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 활용

- (ㄹ) ‘ㅎ’ 불규칙 활용 : 하얏다 - 하야니 - 하애.

<sup>3</sup> ‘성실해라, 정직해라, 조용해라’ 등과 같이 형용사에도 명령이 성립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에도 ‘성실하거라, 정직하거라, 조용하거라’ 등과 같은 명령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sup>4</sup> 최현배(1937=1959: 501)에는 "벗어난 그림씨가 그 으뜸본에 벗어나아서 끝바꿈하는(활용하는) 모양이 대개 벗어난 움직씨와 같으니라"와 같은 언급이 있다. 어느 정도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up>5</sup> 이에 대해서는 문교부(1985) 및 남기심·고영근(1985/1991: 개정판)이 참고된다.

<sup>6</sup> 어미 체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간의 받침이 ‘ㄹ’의 덧생김을 어간의 변화로 본다는 것이 학교 문법이다. 남기심·고영근(1985/1991: 개정판) 참조.

(1)과 (2)에 보인 최현배(1937=1959)의 불규칙 활용은, 동사의 불규칙 활용이 11종,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이 8종으로, 종류가 같은 것을 합치면 총 12종의 불규칙 활용이 설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1985년 학교 문법에 설정된 불규칙 활용은 총 9종에 불과하다. 불규칙 활용이 종류가 대폭으로 감소하였다.

최현배(1937=1959)의 불규칙 활용과, 1985년 학교 문법의 불규칙 활용의 설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는, 학교 문법에서는 동사의 불규칙 활용과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6)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머지 점에 있어서 (1), (2)와 (7)은 매우 흡사한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우선 눈에 띄이는 차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 (8) 1985년 학교 문법에서 달라진 것

- 가. 최현배(1937)의 ‘ㄹ’ 불규칙 활용을 학교 문법에서는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하였다. ‘ㄹ’ 불규칙 활용은 ‘ㄹ’ 탈락이라는 음운 현상에서 다룬다.
- 나. 최현배(1937)의 ‘으’나 ‘우’ 불규칙 활용을 학교 문법에서는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하였다. ‘으’나 ‘우’ 불규칙 활용은 ‘으’ 탈락이라는 음운 현상에서 다룬다.
- 다. ‘르’ 불규칙 활용은 (1다ㄱ)과 (2다ㅇ)에서와 같이 최현배(1937)에서는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 것이었으나, (7다ㅈ)에서와 같이 학교 문법에서는 어간의 불규칙으로 바뀌었다.
- 라. ‘ㅎ’ 불규칙 활용은 (2가Aㄷ)에서와 같이 최현배(1937)에서는 어간의 끝소리가 줄어지는 것이었으나, (7다ㅈ)에서와 같이 학교 문법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으로 바뀌었다.

(8)에서 가장 큰 것은 (8가)라고 할 수 있다. 최현배(1937=1959)를 비롯하여 초창기 문법 학자들이 모두 ‘ㄹ’ 불규칙 활용으로 취급하던 것을 1985년 학교 문법에서는 불규칙 활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8나)의 ‘으’ 및 ‘우’ 불규칙 활용도 같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현배(1937=1959)에서는 ‘으’ 불규칙 활용을 음의 생략으로도 다룬 바 있다. (8다)는 해석과 분류상의 문제이며, (8라)는 부분적으로 해석상의 문제이다. (8라)에서 이전보다 더 지적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얏다-하애’와 같은 변화가 주목을 받은 것이다.

1985년의 학교 문법이 불규칙 활용과 관련하여 가지는 근원적인 결함은 ‘이다’의 불규칙 활용을 다루지 않은 것이다. 학교 문법에서 ‘이다’는 용언이 아니라 ‘서술격 조사’이다. ‘이다’의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자마자 ‘이다’는 조사의 영역에 있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는 ‘이다’의 활용이 가지는 특이성 혹은 불규칙성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코 온당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 (8) 학교 문법과 ‘이다’의 불규칙 활용

- 학교 문법에서는 ‘이다’의 활용의 불규칙성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온

당한 처리라고 할 수 없다.

1985년 학교 문법에서의 이러한 처리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 외의 다른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 불규칙 활용에 대한 비판적 접근

#### 3.1. ‘ㄹ’의 탈락인가 ‘ㄹ’ 불규칙 활용인가

(8가)는 학교 문법에서 ‘ㄹ’ 불규칙을 불규칙에서 제거하고 그것을 음운 탈락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불규칙 활용’에서 ‘불규칙’의 개념을 잘못 파악한 결과로 판단된다. 위에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1985년 학교 문법은 ‘불규칙 활용’을 비자동적 교체(Non-Automatic Alternation)와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비자동적 교체가 바로 불규칙 활용이 되고 자동적 교체(Automatic Alternation)가 바로 규칙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 교체라도 불규칙 활용에 속하는 것이 있다.

규칙 활용은 용언의 일반적인 활용과 그 성격이 같은 것을 말한다. 용언의 일반적인 활용의 모습은 용언의 어간이 그 활용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어미도 일반적인 어미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칙 활용은 용언의 어간이 그 활용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어미도 일반적인 어미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 (9) 규칙 활용의 성격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활용과 그 성격이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것은 어간이 그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며 어미도 일반적인 어미를 취하는 것이다.

‘ㄹ’ 받침을 가진 용언은 몇 가지 특별한 어미가 올 때, 그 받침이 예외 없이 탈락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규칙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9)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규칙 활용에서는 용언의 어간 끝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중시하게 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0) 가. [규칙 활용의 예] 갓다 [鞞] : 갓고, 갓아서, 갓자, 갓아라, 갓게, 갓거나, 갓았다 ; 갓는다, 갓으니, 갓으시오, 갓습니다, 갓으오, 갓으읍니다, 갓으소서, 갓은, 갓을, 갓음.

나. [‘ㄹ’ 불규칙 활용의 예] 팔다 [賣] : 팔고, 팔아서, 팔자, 팔아라, 팔았다, 팔게, 팔거나 ; 판다, 파니, 파시오, 팝니다, 파오, 파읍니다, 파소서, 파는, 판, 팔,<sup>7</sup> 팔[팸]<sup>8</sup>.

<sup>7</sup> 예의 ‘팔’은 어간 ‘팔-’에서 ‘ㄹ’이 탈락하고 미래 관형사형 어미 ‘-ㄹ’이 연결된 것이다.

<sup>8</sup> 예의 ‘팸’은 정서법상 ‘ㄹ’이 있는 것이며, 실제로는 ‘ㄹ’이 발음되지 않는 것이다.

(10가)는 규칙 활용을 하는 일반적인 용언으로 ‘값다’의 예를 보인 것이며, (10나)는 ‘ㄹ’ 불규칙 활용을 하는 ‘팔다’의 예를 보인 것이다. ‘값-’의 어간말 자음 ‘ㅍ’은 어느 경우에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 따라서 그것은 규칙 활용이다. 어간의 말음이 탈락하지 않는 것이, 한국어 활용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10나)는 ‘팔다’가 불규칙 활용을 모습을 보인 것이다. ‘팔고, 팔아서, 팔자, 팔아라, 팔았다, 팔게, 팔거나’에서와 달리, ‘판다, 파니, 파시오, 팝니다, 파오, 파오니, 파읍니다, 파소서, 파는, 판, 팔, 뵈[뵈]’에서는 ‘ㄹ’이 탈락한다. 조음소 ‘으’를 가지는 어미 ‘-ㄴ, -ㄹ, -ㅁ, -니’의 앞, 선어말 어미 ‘-느-, -시-, -오-, -ㅂ(-ㅂ니다/ㅂ니까)’의 앞, 그리고 어미 ‘-오, -소서’ 등의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것이다. ‘ㄹ’ 탈락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1) ‘ㄹ’ 탈락의 조건

- 가. 조음소 ‘으’를 가지는 어미 ‘-ㄴ, -ㄹ, -ㅁ, -니’ 등의 앞.
- 나. 조음소 ‘으’를 가지는 선어말 어미 ‘-시-, -오-, -ㅂ(-ㅂ니다/ㅂ니까)’의 앞 및 ‘-느-’ 등의 앞,
- 다. 조음소 ‘으’를 가지는 어미 ‘-오, -소서’ 등의 앞.

(11가-다)는 전체적으로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조음소 ‘으’를 가지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ㄹ’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1나)의 ‘-느-’는 조음소 ‘으’를 필요로 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따라서 ‘ㄹ’ 탈락을 모두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로 볼 수 없다. 특이한 것은 조음소 ‘으’가 활용형에 작용 요소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ㄹ’ 탈락의 조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적인 이유에서라도 ‘ㄹ’ 탈락을 불규칙 활용에 포함시켜 특별한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학교 문법에서 ‘ㄹ’ 탈락을 규칙 활용으로 보는 이유는 ‘ㄹ’ 받침을 가진 모든 용언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ㄹ’ 받침을 가진 용언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의 문제이다. 어떤 활용이 규칙인가 불규칙인가 하는 것은 다른 용언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9)에서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활용과 그 성격이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ㄹ’ 받침을 가진 모든 용언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ㄹ’ 받침을 가진 용언 내부에서의 일이다. 그것이 규칙이 되는가 불규칙이 되는가는 다른 용언과의 비교를 통해서이다. 다른 용언이 같은 양상을 보이면 규칙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규칙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용언에서는 어간의 받침이, 조음소 ‘으’를 가지는 어미 ‘-ㄴ, -ㄹ, -ㅁ, -나, -니’의 앞, 선어말 어미 ‘-느-, -시-, -오-, -ㅂ(-ㅂ니다/ㅂ니까)’의 앞, 그리고 어미 ‘-오, -소서’ 등의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ㄹ’을 받침으로 가진 용언에서는 탈락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ㄹ’ 탈락은 규칙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다른 일반적인 용언이 보이는 양상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당연히 불규칙 용언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ㄹ’ 탈락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ㄹ’ 받침을 가진 어간이라도 ‘ㄷ’ 불규칙 활용에서 나타나는 어간말 ‘ㄹ’은 탈락하지 않는다. 다음을 보기로 하자.

(12) ‘ㄷ’ 불규칙 활용의 예

가. 듣다[聞] : 듣는다, 듣고, 듣지, 듣게, 듣는구나 ; 들어, 들으니, 들으나, 들으면, 들어도, 들었다, 들었구나, 들은, 들을, 들음.

나. 걷다[步] : 걷는다, 걷고, 걷지, 걷게, 걷는구나, 걷겠다 ; 걸어, 걸으니, 걸으나, 걸으면, 걸어도, 걸었다, 걸었구나, 걸은, 걸을, 걸음.

(13)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의 ‘ㄹ’ 받침

가. 어미 ‘-ㄴ, -ㄹ, -ㅁ, -나, -니’ 등의 앞 : 걸은, 걸을, 걸음, 걸으나, 걸으니, 걸은, 걸을, 걸음, 으나, 걸으니

나. 선어말 어미 ‘-시-, -오-, -ㅁ-(-ㅁ니다/ㅁ니까)’ 및 ‘-느-’ 등의 앞 : 걸으십니다, 걸으시오, 거십니다, /걸으십니다, 걷는다/\*걸는다.

다. 어미 ‘-오-, -소서’ 등의 앞 : 걸으오, 걸으소서.

(12가)는 ‘ㄷ’ 불규칙 활용의 예로 ‘듣다’의 활용을 보인 것이며, (12나)는 ‘걷다’의 활용을 보인 것이다. 어느 예나 자음 어간 앞에서는 원래의 받침이 유지되고, 모음 어미 혹은 조음소를 요구하는 어미 앞에서는 ‘ㄷ’이 ‘ㄹ’로 바뀐다. (13가-다)는 (11가-다)에 보인 ‘ㄹ’ 탈락의 조건에다가, ‘ㄷ’ 불규칙 활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ㄹ’ 어간을 적용시켜 본 것이다. (13가-다)는 모든 활용형에서 ‘ㄹ’이 탈락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13나)의 ‘\*걸는다’와 같은 예이다. 이는 ‘걸는다’와 같은 형식이 쓰이는 것이므로, ‘\*걸-’이라는 활용형의 상정되지 않는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4) ‘ㄹ’ 탈락을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하는 것의 부당성

‘ㄹ’ 탈락을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어간말에 ‘ㄹ’을 가진 모든 용언의 ‘ㄹ’ 받침이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동사 일반이 보이는 특성과 다른 것이며, 동사의 모든 ‘ㄹ’ 받침이 주어진 조건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다.

### 3.2. ‘으’와 ‘우’의 탈락인가 ‘으’와 ‘우’의 불규칙 활용인가

다시 ‘으’와 ‘우’ 탈락을 보기로 한다. 규칙 활용의 예로는 ‘이루다’의 활용을 보기로 한다.

(15) 가. [규칙 활용의 예] 이루다[成] : 이룬다, 이룹니다, 이루네, 이루오, 이루자, 이루는구나, 이루었구나, 이루겠다, 이루고, 이루게, 이루거나, 이루어, 이룬, 이룰, 이룸 ; 이루어, 이루어라, 이루었다 등.

나. [‘으’ 불규칙 활용의 예] 아프다[痛] : **[\*]아픈다**<sup>10</sup> 아픕니다, 아프게, 아프네, 아프구나, 아프겠다, 아픈, 아플, 아픔 ; 아파, 아파서, 아

<sup>9</sup> ‘\*끓’과 같은 형태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sup>10</sup> ‘아픈다’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나, ‘그는 일만하면 아픈다’와 같은 예는 성립 가능하다. 임홍빈(1984) 참조.

파라,<sup>11</sup> 아팠다 등.

다. [‘우’ 불규칙 활용의 예] 푸다[打] : 푼다, 푼니다, 푸게, 푸네, 푸는  
구나, 푸졌다, 푸는, 풀, 품; 퍼, 퍼서, 퍼라, 뿔다 등.

(15가)는 ‘이루다’의 활용을 보인 것이고, (15나)는 ‘아프다’의 예를 보인 것이며, (15다)는 ‘푸다’의 예를 보인 것이다. (15나, 다)만을 보고 ‘으’나 ‘우’ 탈락을 규칙적이라고 보는 것은 ‘규칙적’이라는 것이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하여 얻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15가-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하자.

(16) 가. (15가)는 ‘이루다’의 활용에서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더라도, 어간말 모음 ‘우’는 탈락하지 않는다.

나. (15나)는 ‘아프다’의 활용에서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간말 모음 ‘으’는 탈락한다.

다. (15다)는 ‘푸다’의 활용에서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간말 모음 ‘우’는 탈락한다.

(16나, 다)만을 보았을 때, ‘아프다’나 ‘푸다’의 활용은 분명히 자동적 교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곧 규칙적인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16가)와 같은 예에서는 어간말 모음이 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9)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16나)의 ‘으’ 모음 탈락이나 (16다)의 ‘우’ 모음 탈락은 불규칙인 것이 분명하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7) 가. 긷다[劃]: 긷고, 긷지, 긷게, 긷도록, 그으니 ; 그어, 그어서, 그었다.

나. 그어 →?겨, 그었다 →?졌다.

(17가)는 ‘긷다[劃]’의 활용을 부분적으로 보인 것이다. 모음 어미 ‘-아/어’나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스’이 탈락한다. (17가)의 ‘그어, 그어서, 그었다’는 ‘스’ 탈락에 의하여 생겨난 형식들이다. (17나)는 ‘그어, 그었다’가 때로 ‘겨, 겠다’와 같이 쓰이는 일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17나)에서 중요한 것은 ‘그어’ 대신에 ‘겨’, ‘그었다’ 대신에 ‘졌다’가 부분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어’라는 형식이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으’ 탈락에서는 ‘으+어’가 연결된 형식이 실제로 쓰일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8) ‘으’나 ‘우’ 탈락을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하는 것의 부당성

‘으’나 ‘우’ 탈락을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모든 용언의 어간말 모음 ‘으’나 ‘우’가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동사 일반이 보이는 특성과 다른 것이며, 용언의 어간말 모음 ‘으’나 ‘우’가 주어진 조건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다.

(8다)와 관련한 문제는 아래에서 다루기로 한다.

<sup>11</sup> ‘아파라’는 감탄의 의미일 수도 있고, 절대 명령 혹은 간접 명령일 수도 있다.

### 3.3. ‘르’ 불규칙 활용의 문제

(8다)는 ‘르’ 불규칙 활용이 어간이 변하는 것인가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최현배 (2237=1959)에서는 ‘르’ 불규칙 활용이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1985년의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어간만이 변하는 것으로 보았다. 어간의 ‘ㄹ’이 덧나는 것인데 그것이 어미에 적히게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가령, ‘호르다’가 ‘홀러’로 바뀌는 것을 어간의 ‘르’의 ‘ㄹ’이 바뀌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호르다’에서 ‘호르-’가 어간이므로, 이 상태에서 ‘ㄹ’이 덧난다면, ‘홀르-’가 된다. 그런 다음에 모음 어미 ‘-아/어’가 연결될 때 ‘홀르-’의 어간말 모음 ‘-’가 탈락하여 ‘홀러’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어간에 있는 ‘ㄹ’이 왜 덧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모음 어미 ‘-아/어’는 어간말 모음 ‘-’를 건너서 있기 때문에, ‘ㄹ’의 덧남이 거의 아무런 조건 없이 일어나 나중에 가질 어미를 위하여 대비하는 뜻을 가진다. 즉, ‘ㄹ’이 스스로 ‘ㄹㄹ’로 변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르’ 불규칙에 다시 ‘으’ 불규칙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으’ 불규칙이라는 것은 학교 문법에서 ‘으’ 탈락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18)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더군다나 ‘ㄹ’이 덧나는 것을 왜 ‘르’ 불규칙이라 하는가 하는 명명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 (19) ‘르’ 불규칙의 성격

‘르’ 불규칙을 어간 속의 ‘ㄹ’이 덧나는 것으로 보려고 하나, 이는 문제의 성격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 3.4. ‘ㅎ’ 불규칙 활용의 문제

#### 3.4.1. ‘ㅎ’ 불규칙 활용의 양상

(8라)는 ‘ㅎ’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다. ‘ㅎ’ 불규칙의 예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이에는 ‘좋다’와 같이 어간말이 ‘ㅎ’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활용 문제도 포함된다. 먼저 ‘파랗다’ 활용의 예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20) 가. ‘파랗다[靑]’의 활용에서 어간말 ‘ㅎ’이 유지되는 경우 : 파랗다, 파랗고, 파랗게, 파랗지, 파랗도록 등.

나. ‘파랗다[靑]’의 활용에서 어간말 ‘ㅎ’이 탈락하는 경우 : 파라니, 파라면, 파랍니다,<sup>12</sup> 파라네, 파라오, 파란, 파랄, 파람 등.

다. ‘파랗다[靑]’의 활용에 ‘애’가 나타나는 경우 : 파래, 파래서, 파랬다, 파랬습니다 등.

(20가)는 ‘파랗다’가 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어간 ‘파랗’ 뒤에 ‘-다, -고, -게, -지, -도록’과 같은 자음 어미가 올 때 어간 말음 ‘ㅎ’이 그대로 유

<sup>12</sup> ‘파랗습니다[파란습니다]’의 경우에는 받침 ‘ㅎ’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의 ‘ㅎ’ 어간 뒤에 ‘-니, -면, -버니다/습니다, -네, -오, -니, -르, -르’ 등이 올 때에는 (20나)와 같이 ‘ㅎ’이 탈락한다. 다만, ‘과랑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정서법상 받침을 ‘ㅎ’으로 쓰나, 발음은 ‘ㄷ’과 흡사하게 난다. (20다)는 어간 ‘과랑-’ 뒤에 어미 ‘-아/어’ 나 ‘-아/어’를 가진 어미가 올 때 그 ‘아’가 ‘애’로 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최현배 (2237=1959)에서는 (20다)와 같은 현상이 포착되지 못하였으나, 1985년의 학교 문법에서는 (20다)를 ‘ㅎ’ 불규칙 활용 현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두 가지 현상이 포함된다. 하나는 ‘ㅎ’의 탈락이고 다른 하나는 어미 ‘-아/어’가 ‘애’가 되는 것이다.

### 3.4.2. ‘좋다’류의 활용 양상

먼저 ‘ㅎ’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예들을 보기로 하자.

(21) 가. ‘좋다[好, 良]의 받침 ‘ㅎ’이 유지되는 경우 : 좋고, 좋게, 좋지, 좋도록, 좋거든, 좋더라 등.

나. ‘좋다[好, 良]의 받침 ‘ㅎ’이 탈락하는 경우 : 좋으니 [조으니], 좋으며 [조으며], 좋으면 [조으면], 좋은 [조은], 좋을 [조을], 좋음 [조음] 등.

다. 바로 위의 (21나)에서 어간의 받침 ‘ㅎ’이 발음되면 안 된다 : 좋으니 [\*조흐니], 좋으며 [\*조흐며], 좋으면 [\*조흐면], 좋은 [\*조흔], 좋을 [\*조흐], 좋음 [\*조흠] 등.

(21가, 나)는 흔히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좋다’의 활용을 보인 것이다. (21가)에서는 받침의 ‘ㅎ’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21나)에서는 조음소 ‘으’ 앞에서 ‘ㅎ’이 탈락된다. (21다)는 규칙 활용을 한다고 하는 예에서 받침 ‘ㅎ’이 발음되면 안 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좋으니’를 가령 [조흐니]와 같이 발음하는 것은 한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다. ‘많다, 끊다, 앓다’와 같이 ‘ㅎ’을 뒤에 가지는 겹받침 어간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쫘다[精]’와 같이 ‘ㄹ’을 가진 어간도 같다. ‘많다, 끊다’의 활용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22) 가. 많다[多] : 많고, 많게, 많지, 많도록. 많거든 ; 많으니 [마느니], 많으며 [마느며], 많으면 [마느면], 많은 [마는], 많을 [마늘], 많음 [마늬] 등.

나. 많으니[\*만흐니], 많으며[\*만흐며], 많으면[\*만흐면], 많은 [\*만흔], 많을 [\*만흐], 많음 [\*만흠] 등.

(23) 가. 끊다[斷] : 끊고, 끊게, 끊지, 끊도록. 끊거든 ; 끊으니 [끄느니] 끊으며 [끄느며], 끊으면 [끄느면], 끊은 [끄는], 끊을 [끄늘], 끊음 [끄늬] 등.

나. 끊으니 [\*끈흐니], 끊으며 [\*끈흐며], 끊으면 [\*끈흐면], 끊은 [\*끈흔], 끊을 [\*끈흐], 끊음 [\*끈흠] 등.

(22가)는 ‘많다’의 받침 중 ‘ㅎ’이 자음 어미 앞에서는 유지되나, 조음소 ‘으’

앞에서는 탈락함을 보인 것이다. (22나)는 조음소 ‘으’ 앞에서 ‘많다’의 어간말 자음 중 ‘ㅎ’이 발음되어서는 안 됨을 보인 것이다. (23가)는 ‘끓다’에서도 (22가)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남을 보인 것이고, (23나)는 ‘끓다’에서도 (22나)와 동일한 제약이 성립함을 보인 것이다. (21다), (22나), (23나)에서 ‘ㅎ’이 어느 정도 약하게 발음된다는 것은 한국어의 현실이 아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4) 가. 이해[理解] : [ixɛ]~[ihɛ]~[ihɛ]~[i<sup>h</sup>ɛ]~?[iɛ]

나. 이 해[今年] : [ixɛ]~[ihɛ]~[ihɛ]~[i<sup>h</sup>ɛ]~\*[iɛ]

다. 만해[万海] : [manxɛ]~[manhɛ]~[manhɛ]~[man<sup>h</sup>ɛ]~[manɛ]

(24가-다)는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어떻게 발음되는가를 보인 것이다. [x]를 강한 유기성을 띤 성문 마찰음이라고 할 때, 유성음 사이의 ‘ㅎ’는 그렇게 발음될 수도 있고, [h]와 같이 보통의 유기성을 띤 성문 마찰음으로 발음될 수도 있고, [ɦ]와 같이 아주 약한 유기성을 띤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약화된 [ʰ]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ㅎ’이 거의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시되어야 할 것은 ‘ㅎ’이 적극적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1다), (22나), (23나)에 보인 것은 이러한 현상과는 다른 것이다. ‘ㅎ’이 적극적으로 발음되면 안 된다. 이는 ‘좋다, 많다, 끓다, 쏠다’ 등의 ‘ㅎ’은 결코 규칙적인 현상을 보이는 음이라 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25) ‘좋다’ 등의 ‘ㅎ’ 받침의 탈락

‘좋다, 많다, 끓다, 쏠다’ 등의 겹받침에서 ‘ㅎ’은 조음소 ‘으’ 앞에서 탈락한다. 이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불규칙적 활용으로 보아야 한다.

### 3.4.3. ‘애’ 불규칙 활용의 문제

(20다)는 ‘ㅎ’이 떨어지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어미가 ‘애’가 되는 특이성을 보인다. (20나)에서 ‘파랳다’에서 ‘파라니’가 되는 과정과, (20다)의 ‘파랳다’에서 ‘파래’가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26) 가. 파랳-+ -니 ⇒ 파라니 (\*파랳으니, (\*파랳니)<sup>13</sup>와 같이 되지 않는다)

나. 파랳-+ -아/어 ⇒ 파래 (\*파라하’와 같이 되지 않는다)

(27) 가. \*파라하-+ -니 ⇒ 파라니

나. \*파라하-+ -아/어 ⇒ \*파라하여 ⇒ \*파라해 ⇒ 파래

(26가, 나)는 ‘파랳다’의 어간을 ‘파랳-’으로 상정하여 그 활용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 어간 ‘파랳-’에 ‘-니’가 연결되면, 조음소 ‘으’가 개입되지 않고, ‘ㅎ’이 탈락하여 ‘파라니’가 된다. ‘좋다’의 경우에는 (21나)에서와 같이 ‘ 좋으니’가 되었

<sup>13</sup>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파랳니?’와 같은 의문형이 아니다. 의문 어미 ‘-니’에는 조음소 ‘으’가 선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어간말 자음 ‘ㅎ’이 탈락하지 않는다.

던 것이다. 의문형으로는 ‘과랴니?’가 가능하다. (26나)와 같이, ‘과랴-’에 연결 어미 ‘-아/어’가 연결되면, ‘과래’가 된다.

(27가, 나)는 ‘과랴다’의 기원적인 형태 \*‘과라하다’를 가정하여 그 활용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 ‘과랴+니’는 ‘과라하 + 니’와 같은 연결이므로 그대로 ‘과라니’가 된 것이다. 다만 ‘과라+하-’가 ‘과라-’와 같이 축약되는 것이 특이하다. ‘좋아하-’의 경우에는 ‘좋아’와 같이 축약되지 않는다. ‘과랴-’에 ‘-아/어’가 연결되면, 왜 ‘과래’가 되는가? \*‘과라하-+아/어’가 ‘과라하여’가 되고, ‘하여’가 ‘해’로 축약되고, ‘해’에서 다시 ‘ㅎ’이 탈락하여 ‘애’가 되기 때문이다. ‘하+아/어’가 ‘하여’가 되는 것은 ‘여’ 불규칙 활용과 같은 것이며, ‘하여’가 ‘해’로 축약되는 것도 ‘여’ 불규칙 활용의 한 부수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에서 ‘ㅎ’이 탈락하는 것은 ‘하다’의 활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ㅎ’ 불규칙 활용에는 두 가지 불규칙 활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어간의 ‘ㅎ’이 탈락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미에 ‘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기원적인 형태를 가정하여 설명하면 그 불규칙성이 명쾌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것이 두 가지 불규칙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임도 분명하여진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 (28) ‘ㅎ’ 불규칙 활용의 이중성

‘ㅎ’ 불규칙 활용에는 두 가지 현상이 포함된다. 하나는 어간의 ‘ㅎ’이 탈락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미에 ‘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ㅎ’ 불규칙을 보이는 용언의 기원적인 형태를 가정하여 설명하면 그 불규칙성이 명쾌해지는 장점이 있으며, 두 가지 활용의 불규칙성도 분명하여진다.

### 3.5. ‘이다’의 불규칙 활용

‘이다’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는 임홍빈(2013)에서 다룬 바 있다. ‘이다’ 활용의 특이한 양상 몇 가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9) 가. 철수가 영희를 동생이라고/\*동생이라고 말하였다.

나. 그 일을 한 것이 너로구나/너구나.

다. 내로라/?내로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라. 그가 나의 동생이로다/동생이도다.

(29가)는 ‘영희를’ 뒤에 [[e] 동생이다]가 내포된 구조를 이루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다’는 반드시 어말 어미 ‘-라’를 취하여 ‘이라’가 되어야 한다. 다른 용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내포된 문장에서 ‘이다’의 평서형 어미가 ‘-라’로 되는 것은 ‘이다’의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야 한다. (29나)는 모문의 감탄형 어미에 ‘-로구나’와 같이 ‘-로-’가 더 쓰일 수 있음을 보인다. 단순히 ‘-구나’만 쓰일 수도 있다. 다른 용언의 경우에는 ‘-로-’가 더 쓰이는 일이 없다. 따라서 모문의 감탄형 어미 ‘-구나, -군, -구먼’ 등의 앞에 ‘-로-’가 더 쓰일 수 있는 것도 ‘이다’의 불규칙 활용이라 해야 한다. (29다, 라)는

감탄형 어미 ‘-도다’가 ‘이’ 뒤에서는 ‘-로라’ 혹은 ‘-로다’와 같이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다른 용언의 경우에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로다, 로라’는 ‘이다’의 불규칙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30) ‘이다’ 종결 어미의 불규칙 활용

- 가. 내포된 문장에서 ‘이다’의 현재 시제 평서형 어미는 반드시 ‘-라’가 되어야 한다.
- 나.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 등은 ‘이’ 뒤에서 ‘-로구나’ 등과 같이 바뀔 수 있다.
- 다. 감탄 종결 어미 ‘-도다’는 ‘이’ 뒤에서 ‘-로다, -로라’와 같이 바뀔 수 있다.

다시 다음과 같은 예를 보기로 하자.

- (31) 가. 철수가 진실한 사람이라서/사람이어서 우리는 그를 믿었다.
- 나. 철수의 말이 거짓이라도/거짓이어도 우리는 그를 믿었다.
- 다. 말이 진실이라야/진실이어야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있다.

(31가-다)는 어간 ‘이’ 뒤에 연결 어미 ‘-아/어’의 결합형이 올 때를 보인 것이다. (31가)는 ‘-아서’가 ‘-라서’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인 것이며, (31나)는 ‘-아도’가 ‘-라도’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인 것이다. (31다)는 ‘-아야’가 ‘-라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이다’의 고형이 ‘\*일다’ 였다고 가정하여 잘 설명될 수 있는 예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32) ‘이다’ 연결 어미의 불규칙 활용

- ‘이다’의 어간 ‘이’ 뒤에 연결 어미 ‘-아/어’나 ‘-아/어’ 결합형이 올 때, ‘-아가’ ‘-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다’의 기본형을 ‘\*이라’가 아니라 ‘이다’로만 상정할 때, ‘-라’형은 불규칙이 된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예를 보기로 하자.

- (33) 가. 철수는 진실한 사람이러라/사람이더라.
- 나.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오느니라.
- 다. 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니라.
- 라. 그가 너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리라.

(33가-라)는 의고체 선어말 어미 ‘-러-’ 및 어말 어미 ‘-니라, -리라’의 예를 보인 것이다. (33가)의 ‘-러라’는 회상 시제<sup>14</sup> 선어말 어미 ‘-더-’가 ‘-러-’로 쓰일 있음을 보인 것이다. 임흥빈 (2013)에서는 선어말 어미 ‘-더-’가 ‘-러-’가 되는 것은 ‘이-’의 고대 어간 ‘\*일-’의 받침 ‘ㄹ’의 영향인 것으로 보았다. 다른 용언

<sup>14</sup> 필자는 이를 단절의 인식 양태 선어말 어미로 본 바 있다. 임흥빈(1982) 참조.

에서는 어간의 ‘ㄹ’이 반드시 ‘더-’의 ‘ㄷ’를 ‘ㄹ’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영향은 불규칙적인 것이다. (33나-라)의 ‘-느니라, -니라, -리라’에서 끝으로 오는 ‘-라’는 ‘이다’의 어미 ‘-다’의 고행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동명사 어미 ‘-ㄴ, -ㄹ’ 뒤에 오는 ‘이다’의 활용형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34) 가. 오느니라 = 오[來]-+-느(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ㄴ(소여의 동명사 어미) # 이 (지정 형용사)-+-라(어말 어미).

나. 주니라 = 주[與]-+-ㄴ(소여의 동명사 어미)#이(지정 형용사)-+-라(어말 어미).

다. 기억하리라 = 기억(記憶)+-하(동사 파생 접미사)-+-ㄹ(비소여의 동명사 어미) # 이 (지정 형용사)-+-라(어말 어미).

(34가)는 (33나)의 ‘오느니라’의 분석을 보인 것이며, (34나)는 (33다)의 ‘주니라’, (34다)는 (33라)의 ‘기억하리라’의 분석을 보인 것이다. 이들은 동사명 어미 ‘-ㄴ, -ㄹ’ 뒤에 ‘이다’의 활용이 온 것으로, 어말 어미 ‘-라’는 (29가)와 그 성격이 같다. 다만, (34가-다)의 경우는 내포절 구조에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35) 의고체 어미의 ‘-라’

‘하느니라, 하니라, 하리라’와 같은 예의 어말 위치에 쓰이는 ‘-라’는 이들 구성을 ‘ㄴ, ㄹ’ 동명사 어미 뒤에 ‘이다’가 온 것으로 분석할 때, 어간 ‘이-’가 요구하는 어미 ‘-라’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다’의 활용에는 ‘-올시다, -로소이다, -어늘, -어니와, -언만, -어든’ 등과 같은 특이한 어미 형태들이 쓰이는 일이 있으며, ‘-자’와 같이 특이한 의미 기능을 하는 어미가 쓰이는 일이 있다(임홍빈 2013 참조).

### 3.6. 연결 어미 ‘아/어’ 축약의 불규칙성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36) 가. 철수가 \*오아/와 우리는 떠나지 못하였다.

나. 우리들이 노는 것을 영희가 보아서/봐서 창피하였다.

다. 좋은 씨앗을 주인이 주어서/줘서 가져왔다.

(37) 가. 철수가 \*오아서/와서 우리는 떠났다.

나. 철수가 \*오아도/와도 우리는 떠날 것이다.

다. 철수가 \*오아야/와야 우리는 떠날 것이다.

라. 철수가 \*오았어/왔어.

(36가)의 ‘와’는 ‘오[來]-+-아/어(연결 어미)’의 축약이나, 그 본래의 비축약형인 ‘\*오아’는 그대로 쓰일 수 없다. 이는 (36나, 다)의 ‘보아서/봐, 주어서/줘’의 경우와 대조된다. ‘보아서/봐, 주어서/줘’의 경우에는 축약형이나 비축약형이 모두 쓰일 수 있다. (37가-라)는 ‘-아/어서, -아/어도, -아/어야, -았/었-’ 등과 같은 ‘-아/어’ 결합형의 경우에도 ‘오+-아’의 결합은 ‘와’로만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활용의 불규칙성을 어간이 변하는 것, 어미가 변하는 것,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 것으로 한정할 때, ‘오[來]-+ -아(연결 어미)’는 어간도 변하지 않고, 어미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來]-+ -아(연결 어미)’가 그대로 쓰일 수 없는 것은 분명 이 활용이 가지는 특이성의 일단이다. 이를 불규칙성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에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sup>15</sup>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38) ‘와’ 축약의 불규칙성

동사 ‘오다’의 어간 ‘오·’와 연결 어미 ‘-아/어’ 및 그 결합형과의 통합은 ‘와’로만 쓰인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39) 가. 철수가 현장에 \*가아/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 그 물건은 철수가 \*사아/사 갔다.

다. 그 방에서 \*자아/자 보니 따뜻하였다.

라. 그는 방에서 \*나아왔다/나왔다.

마. 어머니는 밖에서 \*서어서/서서 아들을 기다렸다.<sup>16</sup>

(40) 가. 집에 \*가아서/가서 숙제를 하였다

나. 집에 \*가아도/가도 별 뽀족한 수가 없다.

다. 집에 \*가아야/가야 해결책이 나온다.

라. 철수가 집에 \*가았다/갔다.

마.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었다/섰다.

(39가-마)는 어간이 ‘아나 ‘어’로 끝나는 용언에 어미 ‘-아/어’가 연결될 때, ‘아+아나 ‘어+어’ 연속은 쓰일 수 없고 1음절 크기의 ‘아나 ‘어’만이 쓰일 수 있음을 보인다. (40가-마)는 (37)과 같이 ‘아/어서’ 등과 같은 ‘-아/어’ 결합형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남을 보인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41) ‘-아/어’ 축약의 불규칙성 (1)

‘아나 ‘어’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연결되면, 반드시 축약된다. ‘-아/어’ 결합형 어미의 경우도 이와 같다.

이를 어간의 끝모음과 어미가 동일한 모음일 때 두 모음이 하나의 모음으로 축약되는 규칙적인 현상으로 보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두 모음의 이어질 때 축약이 필수적이고 본래적인 상태대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용언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36가, 나)가 그러한 예이다. ‘주어’가 ‘줘’로 축약되었다고 ‘주어’가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아’의 경우도 같다. 다음과 같은 예도 이와 관련된다.

(42) 가. 그 영화가 우리에게 슬픔을 자아낸다/\*자낸다

<sup>15</sup> 한국어를 익히는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인식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sup>16</sup> ‘어머니는 밖에서 \*서어서/서 아들을 기다렸다.’와 같이 ‘서’만이 쓰이고 뒤에 명사구나 격조사구가 올 때는 그 성립에 다소 이상을 가진다.

- 나. 그런 일을 하기가 저어된다/\*저된다.  
 다. 철수는 그런 일을 하기를 저어한다/\*저한다.  
 라. 병사들이 앞으로 나아간다/나간다.

나타난 대로만 보면, (42가)의 '자아낸다'의 '자아'는 어간의 '아' 뒤에 다시 '아'가 오는 예이다. (42나)의 '저어된다'나 (41다)의 '저어한다'에서도 어간의 '어' 뒤에 다시 '어'가 오고 있다. (41라)의 '나아간다'도 어간의 '아' 뒤에 '아가' 연결되는 예이다. (42가-다)는 오히려 '아가' 축약되면 성립하지 않는다. (41라)의 '나아가다'와 '나가다'는 의미를 달리한다. 여기서 (42가)의 '자아'는 'ㅈ' 아래 아래아와 반치음을 가진 어간의 활용형이라 할 수 있고, (42나, 다)의 '저어'는 중세어 '정+어'에 소급할 수 있다. (42라)의 '나아'는 '나' '에' 소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아나' '어'로 끝나는 어간과 어미 '-아/어' 사이에 다른 자음이 개재해 있었던 형태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9), (40)의 예들에는 그러한 자음들이 상정되지 않는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43) '-아/어' 축약의 불규칙성 (2)

본래 '아나' '어'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연결되면, 반드시 축약된다. '-아/어' 결합형 어미의 경우도 이와 같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44) 가. 낙엽이 \*지어/저 쓸쓸해진다.

- 나. 몸집이 \*작아지어/작아져 다루기 쉽다.  
 다. 9월이 오니, 낙엽이 \*지었다/졌다.  
 라. 낙엽이 \*지어도/저도, 감상에 젖지 않는다.  
 마. 아가가 기어/겨 간다.

(44가-라)는 본동사나 보조용언적인 '지[落, 化]'에 연결 어미 '아/어'나 '아/어' 결합형이 올 때는 '지어'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저'와 같이 축약되어야 함을 보인다. 이는 (44마)에서 '기어'나 '겨'형 모두가 허용되는 것과 대조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45) '지-' 관련 불규칙성

본동사나 보조동사적인 '지-' 뒤에 어미 '-아/어'가 연결되면, 반드시 축약된다. '-아/어' 결합형 어미의 경우도 이와 같다.

연결 어미 '아/어'의 축약과 관련된 불규칙성은 '아/어'와 선행 형태가 반드시 축약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된다. 선행 형태가 '오[來]'와 '지[落, 化]'일 때는 반드시 '와', '저'로 축약되어야 하며, '아나' '어'로 끝나는 어간이 올 때는 '가+아→가'와 같이 반드시 축약되어야 한다.

#### 4. 결론

한국어 문법에서 활용의 개념을 정립한 것도 최현배(1937=1959)라고 할 수

있으며, 불규칙 활용의 개념과 종류를 정립한 것도 최현배(1937=1959)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학교 문법이 통일되면서 학교 문법에도 당연히 불규칙 활용이 설정되었다. 최현배(1937=1959) 문법과 1985년 학교 문법의 불규칙 활용은 그 기본적인 성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세부에서는 실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최현배(1937=1959)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을 구분한 뒤에, 지정사(우리의 지정 형용사)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동사의 불규칙 활용이 11종,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이 8종으로, 종류가 같은 것을 합치면 총 12종류의 활용이 있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1985년 학교 문법에서는 총 9종의 불규칙 활용이 설정되었다. 불규칙 활용의 개념이나 그 적용의 실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학교 문법에서 '이다'의 활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문법에서 불규칙 활용에 도입된 것은 비자동적 교체(Non-Automatic Alternation)의 개념이다. 이에 의하여 종래의 '리' 불규칙과 '으' 및 '우' 불규칙이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불규칙 활용과 비자동적 교체는 그 개념이 매우 흡사하지만, 결코 동일한 것은 아니다. 'ㄹ' 불규칙 활용은 '갈다[研]'와 같으면 '가니-가오니-갑니다' 등과 같이 활용한다. 어간말에 'ㄹ' 받침을 가진 모든 용언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학교 문법이 'ㄹ' 탈락을 규칙 활용으로 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용언의 활용을 고려에 넣지 않는 것이다. 다른 용언에서는 같은 환경에서 받침이 탈락하지 않는다. '리' 탈락은 음운 현상이지만,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규칙 활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으' 및 '우' 탈락도 같다. 이들을 규칙으로 다루는 것은 다른 용언의 활용을 고려에 넣지 않는 것이다.

이 밖에도 '르' 불규칙을 '리'의 덧남으로 보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ㅎ' 불규칙에 '파랗다'와 같은 예에서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과 '-아/어' 어미가 '애'가 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종래에는 전혀 불규칙으로 취급하지 않은 '좋다, 많다' 등과 같이 어간말에 'ㅎ'을 가진 용언에 조음소 '으'가 연결될 때 'ㅎ'이 발음되지 않는 현상도 불규칙 활용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다'의 불규칙 활용도 명백히 기술되어야 한다. '이다' 구문이 내포될 때 그 어미가 '라'로 되는 것, 감탄형 종결 어미가 '로구나, -로구먼, -로라, -로다'와 같이 될 수 있는 것, 연결 어미 '-아/어'가 '-라/러'와 같이 될 수 있는 것 및 '-러라, -느니라, -니라, -리라' 등에서 선어말 어미가 '-러-'가 되거나 어말 어미가 '-라'가 되는 것은 분명히 불규칙한 것이다.

기타, '오[來]'와 '지[落, 化]'에 '-아/어'가 올 때 반드시 '와, 저'로 축약되는 것도 불규칙의 하나이며, '아나' '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연결 어미 '-아/어'가 올 때 반드시 축약이 일어나야 하는 것도 불규칙의 하나로 보았다.

## 참고문헌

- 남기심·고영근(1985/1991: 개정판),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문교부(1985), 문법,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임홍빈(1982), “선어말 {-더-}와 단절의 양상,” 『관악어문연구』 7, 433-47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임홍빈(1984), “先語末 {-느-}와 實現性의 樣相,” 『牧泉兪昌均博士還甲紀念論文集』, 521-565, 啓明大學校出版部.  
 임홍빈(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22, 93-16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임홍빈 (2001), “국어 품사 분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이광호교수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705-761.  
 임홍빈(2013), “이다의 불규칙 활용에 대하여,” 『韓國學研究論文集』 2, 中國文化大學 韓國語文學系 韓國學研究論文集 編輯委員會 編, 1-20.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 분류론』, [참고] 역대국어문법대계 제1부 제17책.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출판부.  
 최현배(1959), 『김고고친 우리말본』, 정음사.  
 Hockett, C. 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

## On Irregular Inflections in Korean

Im, Hong Pin

This paper claims that the *l*(ㄹ)-, *eu*(으)-, *u*(우)-, *h2*-droppings; *ae*(애)-, *wa*(와)-, *jeo*(저)-contractions and the endings with *l*(ㄹ) of the copulative adjective *ida*(이다) should be posited as irregular inflections in Korean, in addition to the *s*(ㅅ)-, *d*(ㄷ)-, *b*(ㅂ)-, *leu*(르)-, *yeo*(여)-, *leo*(러)-, *geola*(거라)-, *neola*(너라)-, and *h1*-irregular already posited in the Korean 1985's unified school grammar.

The most typical case excluded from the irregular inflections in earlier Korean grammar as in Choe (1937) is the *l*-irregular. The grammarians at the time saw that the irregular inflections were identified with non-automatic alternations in Korean. In practice, The original stem final *l*'s in Korean verbs and adjectives drop before the prefinal endings: *-si*(시)-, *-o/op/p*(오/옴/ㅍ)-, *-neu*(느)-, the imperative endings: *-o/soseo*(오/소서)-, and the final endings *-n*(ㄴ), *-l*(ㄹ), *-m*(ㅁ), *-ni*(니), etc. This *l*-dropping occurs without exception, thus is claimed to be automatic. However, irregularity means to be different from other general phenomena. Are there any droppings of the stem final consonants in regular inflections in Korean? No, there is no such phenomenon. This means that the *l*-dropping in Korean should be treated as irregular.

The *eu*- and *u*-droppings should also be treated as irregular, firstly because there is no such dropping in other inflections, and secondly because there exist examples without dropping of the stem final *eu* or *u* vowel. The *h2*-irregular indicates that the stem final *h* as in the adjective *joh*- 'be good' simply drops before the euphonic vowel *eu*. This is not found in other inflections, thus it is irregular. And the inflection of the adjective stem like *palah*(파랗)- 'be blue' shows two different phenomena: one is related with *h1* dropping, the other the final ending *-ae* of the ordinary ending *-a/eo*. These two are conflated into one *h* irregular in the normative grammar. The irregular forms like *ilaseo*(이라서), *ilado*(이라도), etc. of the copulative adjective *ida* should also be treated as the irregular, since the forms of the endings *-laseo*(라서), *-lado*(라도), etc. are not found in other inflections. The *wa*(와)- and *jeo*(저)-contractions should also be treated as irregular, because the original forms like *oa* and *jieo* cannot be sustained.

**Keywords:** Regular Inflection, *l*-Irregular Inflection, *eu*-Irregular Inflection, *u*-Irregular Inflection, Copulative Adjective, *h*-Irregular Inflection. Automatic Alternation, Non-Automatic Alternation, Contractions.

